

외신서 제기된 갤럭시 단종설... “S펜 보강, 노트21 올 출시”

애매한 포지션, 단종설 근거로 작용

삼성전자 노트시리즈 단종설 부인
레츠고디지털 “최소한 올해는 출시”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시리즈가 이번에도 단종설에 휘말렸다. 다만 올해 노트21까지는 출시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15일 외신들과 유명 트위터러들은 최근 들어 잇따라 갤럭시 노트가 올해를 끝으로 단종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갤럭시 노트 단종설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갤럭시 노트7부터 단종설이 끊이지 않았고, 차기작에 대해서도 작년부터 단종이 결정됐다는 루머가 이어져 왔다.

실제로 갤럭시 노트 출시 시기가 6개



레츠고디지털이 예상한 갤럭시 노트21 울트라.

/레츠고디지털

월여를 남겨뒀음에도 차기작 정보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갤럭시 S21 뿐 아니라 하반기 출시 예정인 폴더블폰에 대한 내용도 일찌감치 유출되고 있는 만큼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노트 시리즈가 단종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애매한 포지션이다. 당초 노트 시리즈가 대화면을 앞세운 ‘패블릿’ 원조로 시장에서 자리매김해 왔지만, S시리즈도 6인치 이상 대화면

을 채용하면서 노트만의 강점이 사라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나마 노트9 이후부터 S펜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독창성을 되찾는 듯 했지만, S시리즈에 이어 Z폴드에도 S펜 도입이 유력시되면서 자리가 위태로워졌다.

단, 삼성전자는 여전히 노트 시리즈 단종설을 부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미 노트 시리즈를 이어가겠다고 밝혔고, 여전히 같은 입장이다.

노트 시리즈가 계속 출시될 것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당장 노트 시리즈가 매년 1000만대 수준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 수요를 폴더블폰이 이어가기에는 가격이 비싸고 활용도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S펜을 수납하는 기능도 노트 시리즈의 여전히 장점으로 꼽힌다. 이미 갤럭시 S21에서 S펜 수납 공간을 도입하지

못했고, 폴더블폰 등 다른 모델에서도 기술적인 문제로 구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가 S펜 활용성을 극대화하려는 상황, 노트 시리즈도 여전히 존재 이유가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를 팬에디션 형식으로 출시하는 등 우회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살피고 단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해외 IT 매체인 레츠고디지털은 최소한 올해에는 갤럭시 노트21을 출시할 것으로 확인했다며, 여러 정보를 종합해 가상의 렌더링 이미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하드웨어 사양은 갤럭시S21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이며, S펜도 지연 시간 축소와 에어액션에 더해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LG화학, ESG채권 1조2000억 발행

국내 일반기업 중 최대 규모
재생에너지 전환 투자 등 사용

LG화학이 국내 일반기업 최대 규모의 ESG 채권을 발행한다.

LG화학은 15일 ESG 채권 8200억원 및 일반 회사채 38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20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일반기업이 발행하는 ESG 채권은 물론 회사채 총 발행 규모에서도 역대 최대치다.

LG화학의 8000억원대 ESG 채권 발행은 선연적 차원에 머물렀던 산업계의 ESG 경영이 본격 투자 및 실행의 단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LG화학 회사채에 대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지난 9일 실시한 수요예측 결과, 사상 두 번째 규모인 총 2조5600억원의 자금이 몰렸다. LG화학은 성공적인 수요 예측에 힘입어 당초 계획인 6000억원보다 회사채를 2배 증액 발행하기로 했다.

LG화학의 이번 ESG 채권은 그린본드와 소셜본드가 결합된 지속가능본드로 발행될 예정이다. ESG 채권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사회적 책



LG화학 여수 석유화학공장 용성단지(야경).

임 투자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이다.

LG화학은 ESG 채권으로 조달하는 8200억원의 자금을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환 투자 ▲친환경 원료 사용 생산 공정 건설 ▲양극재 등 전기차 배터리 소재 증설 ▲소아마비 백신 품질관리 설비 증설 ▲산업재해 예방 시설 개선 및 교체 ▲중소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금융지원 등에 전액 사용할 계획이다.

LG화학은 지속가능성을 최우선 경영과제로 삼고, 재활용 플라스틱, 생분해성 수지, 바이오디젤 기반 친환경 수지, 차세대 소아마비 백신 공금 등 환경과 사회에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모델 발굴

등 ESG 경영을 가속화하고 있다.

LG화학 CFO 차동석 부사장은 “이번 ESG 채권의 성공적인 발행은 배터리 사업 분사 이후에도 석유화학, 첨단소재, 생명과학 등 당사의 지속가능한 사업구조와 미래 성장성을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라며 “올해는 전 사업부문에서 ESG 경영 가속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며 지속가능 분야 선도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함께 발행되는 일반 회사채 3800억원은 채무상환 및 석유화학부문 시설 자금 등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한편 LG화학의 이번 회사채는 만기 3년물 3500억원, 만기 5년물 2700억원, 만기 7년물 2000억원, 만기 10년물 2600억원, 만기 15년물 1200억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3년, 5년, 7년물이 ESG 채권으로 발행될 예정이다.

만기 3년, 5년, 7년, 10년물은 개별민평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며 만기 15년물은 개별민평리 대비 0.20%p 낮은 수준으로 금리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확정 금리는 오는 18일에 최종 결정된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삼성엔지니어링, 1400억 OMP 계약 체결

태국 PTT GC와 비대면 계약

삼성엔지니어링이 태국에서 2021년 해외 첫 수주 소식을 전해왔다.

삼성엔지니어링은 태국 PTT GC와 1400억원대의 ‘올레핀 플랜트 개보수 프로젝트(OMP)’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과 태국 방콕에서 온 라인 화상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서면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계약식에는 삼

성엔지니어링 최성안 사장과 이상욱 태국법인장, PTT GC 콩크라판 사장 등 양사의 최고 경영진이 참석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태국 수도 방콕에서 동남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라용시 맵타푹 공단 내의 올레핀 플랜트를 개보수하는 사업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 플랜트의 프로필렌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원료인 프로판의 처리량을 높이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프로판-프로필렌분리증류

탑(C₃ Splitter) 등의 시설을 새롭게 설치하고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게 된다. 완공된 플랜트에서 생산된 프로필렌은 전량 공단 내 폴리프로필렌 생산 플랜트의 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삼성은 EPC(설계·조달·시공)의 분야를 단독으로 수행하며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수주로 삼성엔지니어링과 PTT GC와의 파트너십도 더욱 공고해졌다. PTT GC는 국영석유회사 PTT의 자회사로서 태국 정부발주의 석유화학 프로젝트들을 관장하고 있다.

/김수지 기자

구광모 빅딜 1호 ZKW, 역대최대 주문 확보

(LG 대표이사)

주문액수 10조 이상 추정

LG전자 전장사업이 본격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ZKW는 최근 역사상 최대 주문을 확보했다.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올리버 슈버츠 ZKW그룹 최고경영자(CEO)는 내년에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할 것”이라고 지난 11일(현지시간) 자신하기도 했다.

ZKW는 LG전자가 2018년 인수한 자동차 부품회사다. 구광모 LG 대표가 취임 후 2달만에 인수를 단행했으며, 폴

크스바겐과 BMW 등 글로벌 주요 완성차 브랜드에 헤드램프 등을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LG전자 VS사업부가 올해부터 흑자전환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됐다. 지난해만 해도 연간 3675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봤지만, 4분기에는 20억원으로 손실을 줄이면서 흑자에 근접한 상태다.

ZKW는 투자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말 유럽 투자은행(EIB)에 1억 5000만유로 자금을 지원받아 지속가능한 생산과 녹색 개발에 투자하고 인력 채용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용 기자

LG전자, 통돌이 세탁기에 AI기술 적용

LG 통돌이 세탁기 신제품 출시

세탁물 무게 감지, 최적모션 선택

LG 통돌이 세탁기도 인공지능을 갖게 됐다.

LG전자는 16일 LG 통돌이 세탁기 신제품을 출시한다.

이번 신제품은 인공지능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세탁물 무게를 감지하고 빅데이터 기반 의류 재질을 확인, 6모션 중 최적의 모션 조합을 선택해 세탁 강도를 결정해준다. 섬세한 의류 재질은

옷감 보호를 위해 두드리기와 주무르기 등을 선택해준다.

글로벌 인증기관 인터텍 시험 결과 기존 모델보다 옷감 손상을 10% 이상 줄이는 효과도 확인했다. 세탁기 에너지 사용량도 약 30% 줄었다.

편의 기능도 적용됐다. 와이파이가 LG씽큐에 연결하면 건조기와 연동해 스마트페어링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LG씽큐앱에서 다양한 세탁코스도 추가로 다운로드 가능하다.

/김재용 기자

로지텍

무선 트랙볼 마우스 출시

로지텍이 무선 트랙볼 마우스를 새로 내놨다.

로지텍은 ‘로지텍 M575 ERGO 무선 트랙볼 마우스’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품은 엄지손가락으로 커서를 제어할 수 있는 트랙볼을 조정해 팔 움직임 최소화해주는 무선 마우스다.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진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으며, 누구나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정밀도와 반응성을 높인 옵티컬 센서로 팔과 손가락 움직임도 최소화했다.

/김재용 기자